

## 다~ 먹어버리겠다?

## 안녕! 우리 가족은 식충식물이야.

류 새 한 (식물사회학연구소)

안녕? 인간들은 우리 가족을 식충식물이라고 해. 벌레만 먹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식충식물(食蟲植物)’이란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이란 뜻이고, 벌레잡이식물(insectivore, insectivorous plant), 육식식물(carnivore, camivorous plant)이라고도 해. 우리 가족은 생물(生物)이면서 식물(植物)이야. 즉, 식물이 되는 필수 조건인 광합성(光合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다른 식물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 대부분의 식물이 동물에게 잡아먹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먹이사슬(food chain)의 상황을 반전(反轉)시켜 곤충을 잡아먹는 형태로 변신했지. 우리는 특별한 기관이 있어서 곤충 등의 작은 동물을 잡아 그것을 소화시켜서 양분의 일부를 섭취해. 여기에 이르기까지 지나긴 시간이 필요했어. 먼저 그 과정을 얘기해 줄게.

우리는 식물체 기관의 일부를 변화시켜 곤충을 유인하는 기능과 함께 포충 기능을 하는 기관이 필요했어. 또한 잡은 곤충을 소화시키고,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할 기관도 필요하고…… 그리하여 특유한 생존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났어.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당연히 관계가 깊겠지? 우리의 조상은 햇빛을 좋아 하지만, 키가 작아서 주위의 식물들과 광합성을 위한 빛의 경쟁에서 매번 지게 됐고,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지. 그래서 그들은 일반 식물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험하고 척박한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비옥한 토양이 있는 곳은 참나무류에게 내어주고 바람 부는 능선에만 잔존하고 있는 소나무류의 인생과 닮았나? 척박한 땅에서 뿌리혹박테리아를 활용하여 단백질을 섭취하는 콩과(豆科)식물을 닮았다고 해야 할까? 어찌 되었던 좋은 조건의 생육지에서는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척박한 지역에서는 겨우 발아(發芽)하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네. 하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생활이었어. 다른 식물과 경쟁이 덜한 습지나 절벽, 바위 위에 자리를 잡긴 했으나, 이곳에서는 질소를 얻기 힘들어 질소동화작용(nitrate assimilation)은 여전히 힘들었지. 습지는 산성화된 물과 토양으로 혐기성(嫌氣性)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고, 이러한 여건은 탈질작용(denitrification)을 일으켜 질소동화작용을 힘들게 했어.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식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식물체 구성 단백질을 합성할 수가 없게 되었지. 경쟁자가 거의 없고 광합성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였으나, 질소동화작용이 어려운 환경에 처함으로써 중대한 결단(結團)이 요구되어졌어. 이 결단의 시작은 기적을 일으켰어. 우리의 조상은 생태계의 적자생존(適者生存)이란 규칙을 깨고, 단백질 덩어리인 곤충 등 동물들을 먹어서 질소 성분을 섭취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어. 여기에 일화(逸話)가 하나 있는데 곤충이 죽어서 식물체에 묻어 있다가 빗물 등에 의해 그 썩은 액체가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 과정은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 결과는 사실임을 의심하지 말아줘. 식물체의 기관을 변화시켜 곤충, 미생물 등 작은 동물을 유인하여 포충하고, 이를 분해하고, 소화하여 부족한 질소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었다고 해.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하는 것에 적응한 우리 조상들은 그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엽록체가 있어

서 빛,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양분을 합성했어. 벌레를 잡는 특성은 생육하는 장소에서 안정적인 영양공급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 식물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일부의 기능과 기관이 결핍되어도 질소의 흡수가 가능하기도 한데, 이를 유사식충식물이라고 해. 식충식물인 우리와는 사촌인 셈이지. 우리 가족은 모두 꽃이 피는 현화 식물이고 종자식물이야. 식물계에서 우리 집의 족보는 속씨식물문, 쌍떡잎 식물강으로 통발과가 속한 합판화군(통꽃아강)과 그 외 다른 가족은 이판화군(갈래꽃아강)에 속해. 우리 가족의 열매는 속이 여러 칸으로 나뉘어져서, 각 칸 속에 많은 종자가 들어있는 삭과(蒴果, capsule)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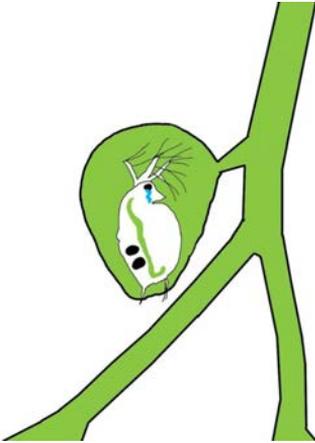
동물을 잡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 크기는 능동적, 수동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벌레를 잡을 수 있는 포충낭을 가진 첫째네 가족은 능동적인 흡입형, 수동적인 함정형, 유도형이 있어. 끈끈이주걱과 같이 개폐기구가 있는 포충엽을 가진 둘째네 가족은 모두가 능동적인 포획형이고, 벌레잡이제비꽃과 같이 점액을 분비하는 선모가 있는 셋째네 가족은 끈끈이형으로 수동적이야.

첫째네 가족은 포충낭이라고 하는 잎이 변형된 주머니모양의 기관을 가진 종류야. 이들 중 네펜테스(*Nepenthes*)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열대 지방에 야생하는 식물로, 이 과에 속하는 것은 전 세계에 70분류군 정도 알려져 있지. 잎이 변형되어 만들어지는 포충기(捕蟲器)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속에는 수액이 들어 있어서 작은 벌레가 빠지면 죽게 되고, 이것을 소화시켜 영양분을 흡수해. 북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인 이들 식물은 관상용으로 온실에서 재배되기도 하지. 한편, 습지식물로서 통발과에 속하는 통발 등도 잎이 변하여 된 벌레잡이주머니가 있어서 곤충 등을 먹이로 하기도 해.

첫째네 가족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통발이야. 통발은 전 세계의 습지에서 발견되며, 동물을 함정에 빠뜨려서 잡는 기술이 대단히 발달하여 뿌리를 전혀 만들지 않아. 이름이 유래한 통발 모양의 물자루에 있는 미세한

투명 주머니 내벽의 표면에 있는 분비선들은 물을 흡수할 수 있고, 물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일부 공간을 진공상태로 만들며, 이 주머니의 입구에는 민감한 강모, 즉 아주 뾰뾰한 잔털들이 빙 둘러 돌아 있지. 만약 모기의 유충과 같은 작은 동물이 이 강모 중 한 개를 건드리면 강모가 지렛대 역할을 하여 입구의 한쪽을 일그러뜨려서 입구의 가장자리가 딱 들어맞지 않고 작은 틈이 생기게 돼. 이 때 물이 안으로 밀려들어가면 입구의 강모를 건드린 동물도 함께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주머니 안으로 밀려들어간 물이 되돌아 나오는 힘에 의해서 입구가 제자리로 돌아가 빈틈없이 맞물려지면 동물은 안에 갇히고 말지. 이 모든 동작은 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이루어져. 내벽의 분비선들이 다시 물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다른 분비선에서 산성 소화액을 내보내 포로를 죽여서 분해하여 흡수해. 통발의 식사시간이 두 시간쯤 지나면 부분적인 진공상태가 다시 만들어져 합정이 다시 기능을 발휘하게 되지.

그림에서 통발의 포충낭 속에 들어간 물벼룩을 그려 봤어. 대부분의 식물은 필요한 미네랄을 토양에서 얻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곳에 사는 식물도 있어. 물 위에 떠 있는 노란 꽃들 아래에는 미로 같은 통발의 잎이 얽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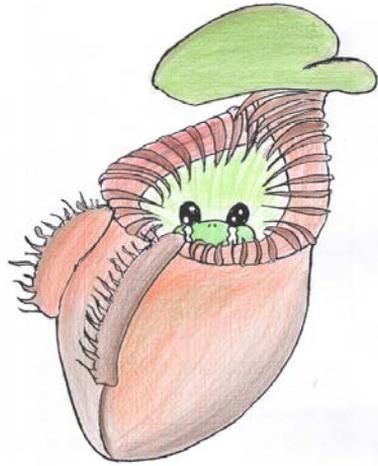


《통발의 포충낭 속에 갇힌 물벼룩》

있는데, 배고픈 물벼룩에게는 완벽한 음식이지만, 슬프게도 먹히는 쪽은 물벼룩! 통발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식충식물이거든. 포충낭은 초당 만 오천 번 움직이고, 근처의 촉수만 건드려도 진공청소기처럼 물벼룩을 빨아들이면 상황이 종료되지. 한국에서도 태안 학암포 사구 습지, 양구 대암산 용늪 등에 가면 통발, 개통발을 직접 만날 수 있어.

포충낭을 가진 첫째네 가족을

좀 더 소개해 줄게. 능동적인 흡입형, 수동적인 함정형, 유도형 세 가지가 있어. 수동형인 함정형은 함정을 미리 파 놓는 셈이야. 네펜데스, 사라세니아, 코브라풀, 케팔로투스, 헬리암포라 등은 지상에 포충낭을 가지고 있어. 지하에 포충낭을 가지고 있는 게늘리세아는 유도형으로, 수중이나 지하수중에 있는 통발의 포충낭은 흡입형으로 달리 분류되지. 포충낭형의 일반적 특징은 포충낭의 입구에 꿀샘이 다수 있고, 여기에 있는 선세포에서 달콤한 물질을 분비하



《네펜데스 포충낭 속의 개구리》

여 향기와 함께 곤충을 유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야. 헬리암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뚜껑이 있어 빗물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사라세니아 푸푸레아의 경우는 뚜껑은 있으나, 활짝 열려 있는 데 빗물이 고여도 포충낭의 길이가 짧아 잘 쓰러지지 않아. 그리고 푸지타치나는 수면 가까이에서 생육될 정도로 수분을 좋아하는 데, 포충낭 윗부분의 안쪽에 구멍이 나 있어 거의 빗물이 들어오진 않지만 주변의 수분이 들어 갈 수는 있어. 달링토니아는 포충낭 머리의 아래 부분에 구멍이 나 있어 빗물이 유입되기 어렵고, 포충낭의 입구 안쪽에는 선모가 아래로 향하여 나 있어 벌레가 빠지게 되면 탈출하기가 어려워. 네펜데스의 경우 내벽이 왁스층으로 되어 있어 매우 미끄러워서 그림의 개구리처럼 그 속에 빠지게 되면 혼자서는 나올 수가 없지.

달링토니아의 경우는 투명한 얇은 막이 다수 있어 내부에 난반사가 일어나 곤충은 방향감을 잃게 되지. 소화기능은 소화액이나 박테리아의 작용에 의해 벌레가 분해되며, 선세포에 의해 흡수돼. 소화를 박테리아에 주로 의존하는 것은 사라세니아, 코브라풀, 헬리암포라 등이며, 벌레잡이풀, 케팔로



《네펜테스(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키나발루산에 서식)》

수어 분해시켜 주거나 다른 개미를 유인하면서 공생해. 로우이는 성숙한 포충낭이 되면 입구를 넓게 펼쳐서 조류나 곤충 등의 분비물을 받아서 소화시켜 분해산물을 흡수해. 넓은 입구에는 분비선이 있어서 작은 고체덩어리를 만들어 동물이 이를 먹으면서 좀 더 시간이 지체되게 하여 분비물을 얻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 개미 등 곤충도 함께 포충하고 있어. 벌레잡이풀과(Nepenthaceae) 벌레잡이풀속(*Nepenthes*)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섬 등지에 80분류군 정도가 분포하며, 이 중 고산(高山)형이 50여 분류군, 저산(底山)형이 30여 분류군으로 모두 습도와 강수량이 높은 곳에서 살아. 고산형은 따뜻한 낮과 서늘한 밤을 좋아하고, 저산형은 낮은 덥고 밤은 따뜻한 것을 좋아 해. 둘 다 포충낭의 생김새와 색깔이 다양하며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자웅이주의 덩굴식물로 꽃은 이판화로 피지. 한국에서는 끈끈이귀개목(Droserales)에 한 과로 속하고, 국외에서는 벌레잡이풀목(Nepenthales)으로 분류되며, 최근에는 벌레잡이풀목(Nepenthales) 벌레잡이풀과(Nepenthaceae) 벌레잡이풀속(*Nepenthes*)으로 한 목, 한 과, 한 속의 독립된 분류를 시도하기도 해. 달링토니아 캘리포니카(*Darlingtonia californica*)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오리건주 남부, 캐나다 서부

투스는 소화액과 공생균 박테리아와 함께 분해 작용을 일으켜. 벌레잡이풀의 경우는 80% 이상이 개미를 잡는데, 비칼카라타의 경우는 슈미츠 개미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대신, 그 개미는 자신들이

잡은 곤충을 잘게 부

가 원산지로, 사라세니아목(Sarraceniales) 사라세니아과(Sarraceniaceae)의 일속 일종이야. 포충낭 머리 부분이 성난 뱀이 머리를 치켜든 형상을 하고 있으며, 벌, 파리 등의 곤충을 포충하고, 꽃은 이관화로 퍼. 사라세니아목(Sarraceniales) 사라세니아과(Sarraceniaceae) 사라세니아(*Sarracenia*)속은 북아메리카 미국의 동남부, 캐나다의 동남부가 원산지로 8종류의 원종에 다수의 아종, 변종이나 자연 또는 인공 교잡종이 있으며, 파리, 벌 등의 곤충을 포충하고, 꽃은 이관화로 피나, 수술은 암술에 감추어져 잘 보이지 않아. 꽃잎은 며칠 후에 떨어지지만 꽃받침은 떨어지지 않고, 암술 끝은 펼친 우산처럼 퍼지는 특징이 있어. 사라세니아목(Sarraceniales) 사라세니아과(Sarraceniaceae) 헬리암포라속(*Heliamphora*)은 중남미 베네수엘라 남부 기아나고지와 브라질 북부가 원산지로 11분류군이 발견되었으며, 햇빛을 좋아하고, 주로 곤충을 포충하며 꽃은 이관화로 퍼. 범의귀목(Sexifragales) 케팔로타과(Cephalotaceae) 케팔로투스속(*Cephalotus*)은 폴리쿨라리스(*follicularis*) 1종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남부의 이탄질 토양의 습지에 격리된 채로 사는 곳이 협소해. 꽃은 이관화로 원추화서로 피고, 개미, 파리 등 주변의 작은 곤충을 주로 포충하며 살아.

흡입형은 쥐뿔과 같은 올가미식으로 아주 능동적이지. 수중이나 지하수 중에 있는 포충낭의 외부와 내부의 압력차에 의해 포획을 해. 내부의 압력이 낮아 입구에서 물벼룩이나 미생물 등이 감각모를 건드리게 되면 입구가 열리면서 물과 함께 빠른 속도로 흡입돼. 이에는 통발과 통발 속의 수생(水生)인 통발, 지생(地生)과 착생(着生)인 땅귀개, 이삭귀개 등이 해당되지. 통발과(Lentibulariaceae)는 분류 방식에 차이가 있어. 쌍떡잎식물 현삼목(Scrophulariales)의 한 과 또는 쌍떡잎식물 합판화군 통화식물목의 한 과로 분류되며, 이에는 약 5속과 300분류군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 식충식물로 된 모든 속(屬) 중에서 전 세계에 가장 널리 분포하지. 또한 통발과에는 통발속의 근연속(또는 아속)으로, 남아메리카와 쿠바에서 자라며 2종으로 이루어진 비오블라리아속(*Biovularia*)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자라며 2종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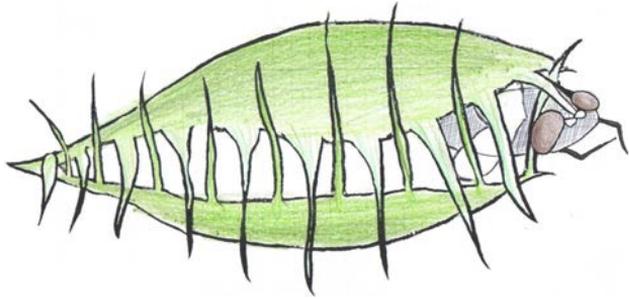
로 된 폴리폼폴릭스속(*Polypompholyx*)은 작은 속으로, 통발속과 매우 비슷하며 매우 특수화된 공기주머니로 먹이를 잡아. 한국에는 통발속의 통발, 들통발, 개통발, 이삭귀개, 땅귀개가 서식하고 있지.

유도형은 게늘리세아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수동적이어야. 게늘리세아속은 뿌리가 없고, 뿌리 역할을 하는 변형된 지하잎에 Y자형의 지하 포충낭이 있어. 그래서 미생물이 포충낭에 다다르면 선모끝이 안쪽을 향하여 나 있기 때문에 잡힌 미생물은 포충낭의 깊은 쪽으로 유도되지. 잡힌 미생물은 소화되어 선세포에 의해 흡수 되. 통발과(*Lentibulariaceae*) 게늘리세아속(*Genlisea*)으로 19분류군이 있고 뿌리가 없는 다년생 혹은 일년생 초본 식물이며, 남미, 아프리카, 쿠바, 마다가스카르섬에서 살고, 소형의 식물체로 꽃대가 10cm보다 작아.

한편, 둘째네 가족은 개폐기구가 있는 포충엽을 가진 종류야. 다른 말로 포획형이라고도 하는데, 강력한 올가미식으로 능동적이지. 육상 생활을 하는 종류로는 끈끈이귀개과에 속하는 파리지옥, 수중생활을 하는 종류로는 같은 과에 속하는 벌레먹이말이 있어. 파리지옥이나 벌레먹이말 등은 포충엽 안쪽에 감각모를 가지고 있고, 곤충이 이를 건드리게 되면 전기 자극이 일어나 팽압에 의해 닫히게 함으로써 곤충을 잡아. 그 전에 포충엽에서 발산하는 향으로 파리 등의 곤충을 유인하는데, 그렇게 해서 잡은 곤충을 압축한 후 선세포에서 소화액을 분비하여 분해한 뒤 선세포에 의해 흡수하는 거야. 미국 캐롤라이나가 원산지인 끈끈이귀개목(*Droserales*)의 끈끈이귀개과(*Droseraceae*) 파리지옥속(*Dionaea*)은 무스키피라(*muscipula*) 1종이 있어. 끈끈이귀개과(*Droseraceae*)인 벌레먹이말속(*Aldrovanda*)은 베시쿨로사(*vesiculosa*) 1종으로 수중식물이며 꽃은 수면 위에서 피지만, 열매는 늘어져 수중에서 성숙해. 한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유럽 등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살고 있지. 파리지옥이 지상에서 파리, 꿀벌 등의 곤충을 주로 포충한다면 벌레먹이말은 수중의 원생동물을 주로 포충해. 그리고 꽃은 모두 이관화로 핀단다. 그림은 파리지옥이 파리를 붙잡아 먹고 있는 중

이야. 정말 파리에게는 지옥이겠지.

셋째네 가족은 밀생(密生)한 선모(腺毛)를 가진 앞에서 점액을 분비하는 종



《파리지옥 포충엽 속의 파리》

류인데, 끈끈이형이라고도 해. 끈끈이귀개과에 속하는 끈끈이주걱, 긴잎끈끈이주걱, 끈끈이귀개, 통발과에 속하는 벌레잡이제비꽃, 털잡이제비꽃 등이 있지. 잎 끝이나 엽면에 점성이 강한 끈끈이액이 선세포에 의해 분비되면 선모 끝에 투명하고 둥근 물방울의 형태로 맺히게 되는데, 그것이 빛에 의해 반짝여 곤충을 유인하여 달라붙게 하는 수동적 방식이야. 잡은 곤충을 선모와 잎줄기로 감싸는 끈끈이귀개속(*Drosera*)이 이에 해당하고, 잎의 표면에 많은 선세포가 있어 잎의 위쪽 표면을 끈끈이액으로 덮고 있으면서 포충시 잎의 가장자리가 살짝 말려 오르는 벌레잡이꽃속이 이에 해당되지. 이밖에 비블리스속(*Byblis*), 드로스필룸속(*Drosophyllum*), 트리피오필룸속(*Triphyophyllum*)에서 나타나는 것은 선모나 잎의 움직임은 거의 없으나 벌레는 끈끈이액에 뒤범벅이 되어 포충된다는 거지. 끈끈이형은 일반적으로 선세포에 의해 끈끈이액을 분비하여 선모 끝에 모으고, 이를 이용하여 벌레를 유인하거나 달라붙게 해. 또, 포충시 먹이의 움직임에 따라 더 많은 끈끈이액이 분비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먹이는 대부분 그들의 복부에 있는 호흡구멍이 끈끈이액에 막혀 질식하게 돼. 그리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선세포에 의해 분해된 물질을 흡수하지. 이판화군 끈끈이귀개목(*Droserales*) 끈끈이귀개과(*Droseraceae*) 끈끈이귀개속(*Drosera*)은 식충식물 중에서 대표적인 속이며, 그 속에는 전 세계에 120여 분류군이 분포하고 있어. 한국에는 끈끈이주걱, 긴잎끈끈이주걱, 끈끈이귀개 등을 볼 수 있단다. 그

들은 모기, 하루살이, 파리 등의 곤충을 포충하며, 잡은 벌레를 감싸는 굴곡운동을 해. 끈끈이귀개목(Droserales) 끈끈이귀개과(Droseraceae) 드로스필름속(*Drosophyllum*)은 루시타니쿰(*lusitanicum*) 1종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철사같이 거친 식물로 포르투갈과 모로코 근처의 메마른 자갈언덕에서 살아. 이판화로 피며 꽃은 4~5월경에 노란색 꽃이 피고, 낮에 피고 저녁에 져. 통발과(Lentibulariaceae) 벌레잡이제비꽃속(*Pinguicula*)은 45분류군으로, 구열대 및 대양주를 제외한 북반구의 한대와 온대 지방을 비롯하여 중남미의 멕시코 등에 분포하며, 주로 고산지대의 습한 암벽이나 습원에서 살지. 꽃은 합판화란다. 끈끈이주걱에 비하여 벌레를 잡는 동안의 움직임은 적지만 먹이를 잡는 동안이나 후에 영양분의 손실을 막기 위해 잎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한국에는 벌레잡이제비꽃, 털잡이제비꽃이 있지. 제비꽃목(Violales) 디옹코필라과(Dioncophyllaceae) 트리피오펠름속(*Triphyophyllum*)은 펠타툼(*peltatum*) 1종으로 된 식물로, 서부 아프리카의 상아해안 연안에 살며, 일생을 통해 색다른 세가지 유형의 잎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해. 첫 번째 유형의 잎은 폭이 4cm 정도이며, 길이가 15cm 정도로 길고 뾰족한 잎이고, 두 번째 유형의 잎은 포충엽을 이뤄. 세 번째 유형의 잎은 잎의 말단에 두 개의 갈고리를 형성하며, 이 갈고리를 이용해서 주위의 다른 식물들을 타고 오르는 습성이 있지. 범의귀목(Saxifragales) 비블리다과(Byblidaceae) 비블리스속(*Byblis*)은 6분류군이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아처럼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운 사기질 토양에서 서식하고 있고, 비블리스의 꽃은 보라색, 적자색 등으로 조그맣게 피.

이밖에 우리와 비슷한 부분적인 특징을 보이는 유사식충식물이 있어. 이들은 소화액은 분비하지 않지만, 웅덩이에 산성의 용액과 공생균 박테리아 등의 도움으로 분해산물을 흡수하는 Bromeliaceae과, 같은 작용을 하나, 외떡잎식물로 식충성이 입증되지 않은 *Paepalanthus*속, 곤충을 포충하되 소화와 흡수는 하지 않는 *Capsella*속, *Passiflora*속, 소형의 우산이끼로 포충활동은 하되 소화와 흡수는 입증되지 않은 *Hepatics*, 잡은 곤충을 간접적

으로 공생하는 곤충의 배설물로 흡수하는 *Roridula* 속의 *R. dentata*, *R. gorgonias*가 있어.

끝으로 우리 가족 즉, 식충식물이 생태계의 먹이사슬의 순환관계를 바꾸어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식물의 일반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단지 질소동화작용을 위해 곤충을 유인하여 포충하고 소화시켜 이 분해산물을 흡수하면서 부족한 양분을 보충하는 기능만이 다른 식물들과의 차이점이 지. 우리 가족도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초식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고, 나방의 애벌레나 곤충의 유충, 달팽이류 등 동물 천적을 가지고 있어. 식충 식물 역시 생태계의 한 식물군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는 단지 우리 나름대로 생태계에 적응 하는 생존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줘.



《통발의 꽃(태안해안국립공원, 학암포습지)》



《끈끈이주걱(월출산국립공원, 도갑습지)》